

2008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⑤	2	①	3	⑤	4	④	5	⑤
6	⑤	7	③	8	④	9	⑤	10	⑤
11	⑤	12	②	13	③	14	③	15	⑤
16	④	17	④	18	⑤	19	①	20	⑤
21	④	22	④	23	⑤	24	①	25	④
26	③	27	⑤	28	④	29	①	30	②
31	⑤	32	②	33	③	34	⑤	35	④
36	③	37	②	38	④	39	②	40	④
41	②	42	⑤	43	②	44	②	45	④
46	②	47	⑤	48	④	49	③	50	①

[듣 기]

<1번> 이제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그림을 보면서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효과음 : 놀이 공원 롤러코스터 소리)

선생님(여) : 친구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영수 너는 왜 안 타고 있지?

학 생(남) : 저렇게 빨리 달리고 떨어지는 걸 보니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선생님(여) : 그건 그렇지 않단다. 다 과학적 원리를 고려해서 안전하게 설계하거든.

학 생(남) : 어, 그래요? 롤러코스터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어요?

선생님(여) : 여기 롤러코스터 구간도를 보며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 먼저 정거장을 출발한 차량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 이 구간에선 차량의 속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아. 그러다가 급격히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구간이 있어. 이 구간은 중력이 작용하여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곳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부분은 차량이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이야. 이 때 차량의 속력이 빠르게 증가하지. 이 부분에서 승객들은 엉덩이가 위로 들리고 온몸이 붕 뜨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공포감에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하지. 하지만 안심해. 안전띠가 있잖아. 두 번째 부분은 레일의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면서 떨어지는 차량이 트랙과 부딪치는,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구간이야. 이 구간을 지나면서 차량의 운동 방향은 수평으로 바뀌지. 그래서 엉덩이가 다시 의자에 닿게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학 생(남) : 선생님, 그러다가 옆으로 도는 구간도 있잖아요?

선생님(여) : 스크루 구간을 말하는구나! 이 구간은 널쿨이 나무를 휘감듯 차량이 거의 옆으로 누운 형태로 커브를 돌지. 그래서 원심력이 커서 온몸이 옆으로 뻗겨 나갈 것만 같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띠가 필요한 구간이야. 다음 구간은 루프 구간이지. 롤러코스터가 원 모양의 궤도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야.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뒤집어져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잖나? 하지만 걱정 마. 롤러코스터가 회전의 정점에 있을 때, 롤러코스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지는 않아.

학 생(남) : 와, 그렇군요. 롤러코스터에 이렇게 여러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지금 함께 롤러코스터 타러 가요.

1. [말화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오르막 구간으로 높은 곳을 향해서 천천히 오르는 구간이다. 바닥을 향하여 내려가는 구간 중 첫 번째 구간인 ㉡은 엉덩이가 위로 들리고 온몸이 붕 뜨는 느낌을 갖게 되며, 두 번째 구간인 ㉢은 차량의 운동 방향이 수평으로 바뀌게 되어 엉덩이가 다시 의자에 닿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은 스크루 구간으로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여 몸이 옆으로 뻗겨 나갈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구간이다. ㉤은 루프 구간으로 롤러코스터가 회전의 정점에 있을 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아 밑으로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고 운행된다. 그러므로 ㉤구간에서 ㉢처럼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는 반응은 타당하지 않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학생 여러분께 ‘기억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62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다니엘 오퍼는 14세 소년 73명을 모집하고, 가정 환경과 성(性) 정체성, 부모에 대한 느낌, 부모의 훈육 방법 등에 대하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48세가 되었을 때, 10대 시절을 기억해 보라고 했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기록된 것과 일치된 회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10대 시절에 외향적인 성격이었다고 회상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자신이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회상한 사람들 역시 그 당시에는 갈등이 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기억 가운데 대부분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뇌는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를 재구성하여 기억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입맛에 따라 남겨놓고 싶은 것만 기록하는 ‘제멋대로 저장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실이야 어찌되었건 현재의 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과거의 사건을 재구성하곤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나는 친구들의 방해와 졸음을 떨치고 공부에 집중해서 시험을 잘 보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저조한 성적이 나오면, 나는 이런저런 상황의 피해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줄거리를 전개합니다. 이런 현상을 ‘기억의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기억을 임의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장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2. [중심 화제 파악하여 사례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중심 화제를 파악한 다음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강연의 내용은 ‘기억의 왜곡 현상’을 중심 화제로 삼고 있으며, 주변에서 이러한 현상에 해당되는 사례를 묻고 있다. ㉠은 ‘반 평균보다 떨어진 점수’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볼 수 없다.

<3번> 이번에는 두 자매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생 : 언니, 나 지금 너무 속상해.

언니 :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동생 :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라고 하셔서, 내가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었거든. 우리 반에서는 내가 수학의 신 아냐! 그런데 문제가 좀 어려워서 풀다가 막혔어. 그래서 다른 아이가 나가서 대신 풀었는데, 글썄, 수업이 끝나고 한 애가 “네가 웬일이니? 네가 못 푸는 문제도 있었어?” 이러는 거야. 어떤 애는 “어, 수학의 신이 바뀌는 거 아냐?” 이라고 있고,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 한 문제 못 풀었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언니 : 좀 속상하기는 했겠다. 하지만 그런 일로 자존심이 상할 이유는 없어. 왜냐하면 말이야, 진정한 자존심은 남이 세워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세우는 거니까. 흔히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느끼려고 하지. 하지만 진정한 자존심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기보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야.

동생 : 언니, 난 지금 ‘진정한 자존심’의 정의를 듣자는 게 아니라, 오늘 기분이 영 아니라는 거야. 언니는 전공이 철학과여서 그런지 무슨 얘기만 하면 꼭 분석적으로 말하더라.

언니 : 글썄~, 난 지금, 바로 그 우울한 기분의 실체를 말하려는 거야. 흔히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을 받아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지. 하지만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거든. 작년에 말이야, 어떤 공연 기획자가 유명 초청 인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 분의 성함을 몰라 헤맸대. 그리고 나서 그 사건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지? 하지만 꼭 그렇게 남들이 알아줘야 하는 건가? 자기의 권력을 남에게 행사하려 들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야.

동생 : 언니, 언니는 학자적 기질은 있어도 상담가적 기질은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 난 그냥 방에 들어가서 수학 공부나 할게.

3. [말하기 방식 평가하기]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말하기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동생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여 속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언니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언니는 동생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분석적인 설명만 늘어놓고 있다. 따라서 동생이 언니와 대화를 단념한 이유는 ㉤처럼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으며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4~5번> 이번에는 토론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만화 ‘식객’이 영화로 제작되어 관객 동원에 성공한 사례처럼 최근 ‘만화의 영화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생님, 영화 제작에 있어 만화가 갖는 매력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선생(여) : 네, 만화는 스토리 구성이 탄탄하고, 캐릭터 설정이나 장면 구성 등 영화화될 수 있는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이 선생님은 만화의 영화화를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이 선생(여) :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계는 소재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올드보이’나 ‘타짜’ 같은 인기 만화는 매력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작품은 고정 관객을 확보하고 있어 영화화될 경우 흥행 가능성도 높고, 영화의 홍보 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만화의 영화화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선생(남) :	영화가 만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탈할 수는 없지만, 영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라 할 만큼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업체가 만화의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기획한다면, 결국 만화가들은 예술성 있는 작품의 창작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만화계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예술 장르로서 만화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김 선생님은 만화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여 만화의 영화화를 반대하시는군요.
김 선생(남) :	그렇습니다. 만화는 만화로서 독자에게 다가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대중성과 상업성은 만화를 독자적 예술이 아니라 영화에 소재나 제공하는 부수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큼니다. 또한 두 매체 간의 접목은 서로의 영역을 해체하고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호 발전이 아니라 각 매체의 고유한 특성마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선생(여) :	하지만 저는 만화의 영화화가 양질의 만화 제작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화와 영화 두 매체를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만화와 영화의 상호 발전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김 선생(남) :	저는 만화의 다양한 장르 개발이나 인력 양성 같은 만화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만화의 영화화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두 매체의 결합을 시도하기보다는 각 매체의 독자적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생(여) :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 그래픽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은 만화와 영화의 상호 접목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만화와 영화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문화적 체험을 통해 문화 예술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만화의 영화화 경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화의 영화화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요. 잠깐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토론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최근 만화의 영화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회자의 발언을 통해 ①의 영화 제작의 최근 경향 알 수 있다. ②의 만화의 영화화가 지닌 장점은 이 선생의 첫 번째 대화에서, ③의 만화의 영화화에 대한 전망은 이 선생과 김 선생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의 만화의 영화화가 만화에 미치는 영향은 ‘만화의 영화화’가 만화 자체의 특성을 사라지게 하고, 만화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김 선생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④의 예술 장르로서 만화와 영화가 지닌 위상에 대한 정보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5. [발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기]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토론자의 견해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토론에서 이 선생님(여자)은 ‘만화의 영화화’에 찬

성하는 입장이고, 김 선생님(남자)은 만화의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만화의 영화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취자 게시판에 올린 의견 중 이 선생님(여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⑤이다.

[쓰 기]

6. [연상을 통해 글감 생성하기]

[출제의도]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내용을 파악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글감을 생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위와 아래의 그림을 통해 ‘조화, 개성, 사물의 의미, 쓰임새, 만남’의 의미를 연상할 수 있다. 연상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글감을 생성했을 때, ⑤의 연상 내용을 가지고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는 글감을 생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사고의 전개 과정 확인하기]

[출제의도] 설문지 작성 과정을 통해 내용 생성의 논리적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문제이다.

[해설] TV 드라마가 청소년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 계획을 세워 그 세부 내용을 작성했을 때, ③의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는 시간대가 언제인가?’를 묻는 설문 문항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청 시간대에 관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을 뿐, TV 드라마가 청소년의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알 수는 없다.

8. [개요 수정하기]

[출제의도] 개요를 작성한 후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개요의 전체적인 내용은 ‘불법 간판의 정비’에 대한 것이다. ㄱ의 자료가 간판 광고물이 도시 미관과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으므로 ①에서 주제문을 ‘불법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살리자.’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 ㄴ의 자료는 불법 간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②에서 ‘I. 서론’에 실태로 제시하는 것도 타당하며, ㄷ의 내용은 업소 간 손님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므로 ③도 타당하다. ⑤에서 ㄹ의 내용을 근거로 ‘설치 장소의 자율화’보다는 간판 제작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④에서 ㄷ은 간판의 수량 과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간판 형태의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⑤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에 직유의 표현이 나타나 있고,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더 큰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에는 역설적 표현과 인식의 전환이 드러난다. 그러나 ①은 역설적 표현과 직유의 표현이 없으며, ②는 역설적 표현만이 나타나 있고, ③과 ④는 직유의 표현만 보인다.

10. [고쳐 쓰기 방안 파악하기]

[출제의도] 토의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고쳐 쓰기를 하였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2>에서 토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확인해 보면, ㄱ은 <보기2>에서 ‘여러분은~않습니까?’의 문장을 첨가하였고, ㄴ은 <보기2>에서 <보기1>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야 합니다.’의 문장을 삭제하거나, <보기1>의 ‘행복한 삶~없을 것입니다’의 문장을 <보기2>에서 ‘여러분은 동아리 활동~있을 것입니다.’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ㄷ은 <보기2>에 호이징가의 말을 인용하였고, ㄹ은 <보기2>에 동아리 활동과 학교 축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ㄹ은 <보기2>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다.

11. [청자에 대한 화자의 요구 이해하기]

[출제의도] 화자의 요구 유무, 요구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ㄱ은 화자가 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 문문이므로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 ㄴ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고, ㄷ은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함께 하도록 권유하는 청유문이고, ㄹ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문이다. 그러나 ㄹ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바람을 나타낸 수사 의문문이다.

12. [대등 합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출제의도] 대등 합성어가 또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관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ㄱ의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 ‘좌우간’은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ㄷ의 ‘조만’은 ‘이름과 닮음’, ‘조만간’은 ‘앞으로 곧’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좌우간’과 ‘조만간’은 대등 관계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거나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 경우이다.

[현대시]

[13-16] 출전 : (가) 한용운, 「해당화」
(나) 서정주, 「침향(沈香)」
(다) 안도현, 「간격」

13. [시의 공통점 이해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임파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원망의 감정을 ‘해당화’를 매개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침향’을 중심으로 침향의 의미와 함께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다)는 ‘나무’와 ‘숲’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인간의 삶과 연관 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①에서 (가)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와 거리가 멀며, ②에서 (가), (다) 모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③에서 (나)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침향’을 묻는 절마제 사람들의 행위를 긍정하는 태도에서, (다)는 사람들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간격’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에서 화자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④의 (다)에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찾을 수 없고, ⑤에서 (가)~(다) 모두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보이지 않는다.

14.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하기]

[출제의도]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인간성의 회복과 삶의 위기 극복을 시도한 시인의 창작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할 때, ①에서 후대를 위해 ‘침향’을 만드는 사람들의 행위에서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②에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태도, ④에서 초월적 시간을 지향하는 여유 있는 삶의 모습, ⑤에서 이익을 바라지 않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③에서 ‘침향’을 준비하는 절마제 사람들의 행위와 ‘민족 의식’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인간성 회복이나 삶의 위기 극복과 연결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5. [작품 비교 감상하기]

[출제의도] <보기>의 작품과 비교하여 작품 창작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와 (다)는 모두 나무라는 소재를 등장시켜 바람직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다)의 ‘간격’은 <보기>의 ‘여백’의 의미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나무’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과 관련지어 이야기하는 있는 것은 (다)와 <보기>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⑤에서 <보기>의 화자가 ‘허공’이 외로움을 준다고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때, 성숙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시어의 기능 이해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 시어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화자가 처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정서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며, ㉡은 화자가 ‘간격’의 의미를 깨닫는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은 정서 표현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은 인식 변화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은 계절의 변화를 보여 주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며,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지도 않는다. ㉡은 시상 전환과는 거리가 멀며, 주제 의식을 집약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기 술]

[17-19] 출전 : 한가타 야스마사(정난진 역), 「3일 만에 읽는 생활 속 과학」

17.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의 내용은 첫 번째 단락의 ‘즉, 히터의 열을 내부 솔에 전달하여~’를 통해서 잘못 진술된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은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②는 세 번째 단락에서, ③은 첫 번째 단락에서, ⑤는 마지막 단락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8. [정보를 바탕으로 반응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IH 압력솔이 문제가 있어 ‘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밥솔에 마이크로컴퓨터가 주파수를 높게 설정해서 화력이 약한 경우, 온도 조절을 실패할 경우,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를 원인으로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에서 히터가 내부 솔을 가열하는 방식은 IH 압력솔 이전의 취사기에서 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9. [주어진 정보에 맞는 적절한 어휘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의미와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기능은 세 번째 단락의 둘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열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와 관련 있는 단어는 ‘발열체(發熱體)’이다. ‘발광체(發光體)’는 ‘체 몸에서 빛을 내는 물체’를, ‘가연체(可燃體)’는 ‘불에 탈 수 있거나 잘 타는 물체’를, ‘탄성체(彈性體)’는 ‘탄성을 갖는 물체’를, ‘절연체(絶緣體)’는 ‘전기나 열을 잘 전하지 못하는 물체’를 의미한다.

[현대 소설]

[20-23] 출전 : 한승원, 「어머니」

20.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은 문장에 쉼표를 여러 번 사용하여 긴 호흡을 유지하면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서술자는 하나의 문장 안에 인물의 심리와 서사적 상황을 마치 끊임없이 하소연하거나 뉘두리를 늘어놓는 방식으로 진술한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에서와 같이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으며,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내고 있을 뿐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21. [인물의 심리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음성 상징어를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오순도순’은 ‘의종게 노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어머니는 ‘시집간 딸이 저희들끼리 금슬 좋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무엇을 바라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 또 ‘푸룻푸룻’은 ‘군데군데 푸르스름한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한겨울 감옥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아들을 떠 올리며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깥사돈은 ‘빠끔빠끔’ 담배를 피우며 형식적인 인사말만 하고 있으며, ‘꼬치꼬치’는 ‘끝까지 살살이 따지고 캐묻는 모양’으로 안사돈은 어머니를 별로 반기지도 않고 막동이가 감옥에 간 일을 캐물으며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④의 안사돈이 어머니를 살갑게 대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2. [소설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출제의도] 소설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사위는 어머니를 반가워하며 모녀가 함께 밤을 지새울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려고 일부러 마을로 나갔다. 하지만 두 모녀는 오랜만에 정담을 나누며 나란히 누워 밤을 새우지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딸은 그 밤으로 어머니가 이고 온 미역을 김으로 바꾸어 와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3. [소재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소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 주먹밥은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며 따라서 어머니가 가난한 살림에 갇은 고생을 해가며 마련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주려 했던 따뜻한 쇠고깃국과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고전 소설]

[24-27] 출전 : 작자 미상, 「금송아지전」

24. [등장인물의 심리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에서 어의는 처음부터 보만후의 처지를 동정하여 금송아지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였다. 그리고 보만후를 돕는 금송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채란은 금송아지를 없애 달라고 어의에게 부탁한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죽이는 것을 승낙하지 않은 왕에게 모든 대신들은 왕후를 살리기 위해 금송아지를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금송아지가 자신을 돕자 보만후는 금송아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의 왕이 보만후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5.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작품 이해하기]

[출제의도]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의 뒷이야기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④는 <보기>에 제시된 ‘불교적 인연설, 변신 모티프, 권선징악의 주제 의식, 행복한 결말 구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이야기이다. ①, ②에는 악을 징계하는 내용과 변신 모티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③, ⑤에는 악을 징계하는 내용이 없으며 행복한 결말로 확인할 수 없다.

26. [대사가 지닌 특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꿈속에서 듣게 되는 대사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보만후에게 금송아지가 자식임을 알려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은 어의에게 금송아지를 죽이지 말 것을 주시시키고 있다.

27.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상황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좋은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살다.’, ②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다.’, ③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④는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⑤는 ‘입은 있으나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과 학]

[28-31] 출전 :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매일진 과학향기, 「이 한 몸 바쳐 주인을 살리리! 세포자살」

28. [정보를 통해 과정 이해하기]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통해 작동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크로시스는 ‘삼투압의 차이 발생→세포 안으로 물 유입→세포 터짐→염증 발생’으로 그 과정을 요약할 수 있다.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포토시스는 ‘유전자의 작동→단백질 생성→ATP 소모→세포의 단편화→식세포의 처리’로 그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아포토시스의 첫 단계인 ‘유전자 작동’, ㉡은 세포가 조각나는 단편화 과정, ㉢은 네크로시스의 마지막 단계인 ‘염증 발생’으로 정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이에 해당한다.

29. [유사한 사례 찾기]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적절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아포토시스는 발생과 분화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 우리 몸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발생의 과정에서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카멜레온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며, 도마뱀의 경우 발생과 분화와는 관련이 없으며, 연어의 죽음은 본능에 의한 것이고, 레밍의 경우도 발생이나 분화와는 관련이 없다.

30.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적절한 추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에서 몸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은 세포의 재생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③에서 아포토시스를 이용한 항암제는 이미 유전자 변형으로 생겨난 암세포의 죽음을 유발하므로 유전자 변형을 막는다는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화학 약품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오히려 아포토시스가 일어나는 과정을 방해하므로 ④의 추론은 타당하지 않다. ⑤에서 아포토시스는 염증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역시 잘못된 추론이다. 그러나 ②는 4번째 단락의 손모양이 생겨나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추론 내용이다.

3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제시문 속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문맥적 의미는 ‘생리적인 현상이 생겨나게 하다.’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는 ⑤이다. ①은 ‘물리적 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만들어 내다.’의 의미이며, ②는 ‘어떤 사태나 일을 벌이거나 터뜨리다.’의 의미이며, ③은 ‘무엇을 시작하거나 흥성하게 만들다.’의 의미이며, ④는 ‘심리적인 현상이 생겨나게 하다.’의 의미이다.

[언 어]

[32-34] 출전 : 김승웅, 「28자로 이룬 문자 혁명, 훈민정음」

32. [세부 정보 이해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에 있는 세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자음과 모음을 각각 문자화한 것을 음운 문자라고 하는 것을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 단어의 경우 한 단어가 여러 문자로 표기될 수 있으므로 소리는 같지만 철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반면, 훈민정음은 1자 1음, 1음 1자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훈민정음은 세밀한 과정 층위에 의해 말소리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제시하고 있어서 맞는 진술이다. 그러나 영어의 모음자는 5개이지만, 하나의 모음이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모음자의 개수에 따라 문자의 우열을 나눌 수 있다는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3. [정보를 확인하여 적용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자판을 칠 때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이려면 양손을 번갈아가며 쳐야 한다. 따라서 ㄱ의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다. 그리고 ㄴ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자음과 모음이 왼쪽, 오른쪽 고르게 양분되어 있어서 왼손과 오른손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진술은 맞는 진술이다. ㄷ에서 ‘communication’은 자음이 7개, 모음이 6개로 비슷하지만, 자판을 왼쪽 4회, 오른쪽 9회로 오른쪽을 더 많이 쳐 맞는 진술이다. ㄹ의 ‘communication’과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자판을 치는 횟수가 차이가 나므로 잘못된 진술이다.

34. [부가된 정보를 통해 심화하여 이해하기]

[출제의도] 제시문과 부가된 정보를 통해 심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로마 알파벳은 한글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하여 표기할 수 있어서 ①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로마 알파벳은 한글처럼 음운 문자이어서 음절을 이룬다. 다만, 눈으로 빨리 식별하기 어려울 따름이므로 ②의 진술도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음운 문자는 소리를 표기할 수 있으므로 ③의 진술도 적절하지 않다. 또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 삼분법은 나열식 배열이 아니라 음절을 모아쓰는 방식이므로 ④의 진술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⑤의 진술은 <보기>에 제시된 대로 음운 문자와 음절 단위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

[예 술]

[35~38] 출전 : 김현주, 「판소리와 풍속화 그 님은 예술 세계」

35.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충실히 파악하여 사실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다성적 시점이란 혼합 시점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의 첫 문단에 따르면 작품에 예술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시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다. 따라서 ④의 ‘판소리의 시점 혼합 현상은 작품의 예술적 통일성에 기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6.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의 ㉠~㉢은 판소리 광대가 연행 중에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다.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보

기> 「홍보가」의 구체적 연행 장면과 대응시켜 보면 ㉠은 ‘진양’ 부분의 홍보 아내의 역할과 ‘자진모리·아니리’ 부분의 홍보 역할, ㉡은 ‘휘모리’ 부분의 툇질하는 소리, ㉢은 ‘진양’ 부분 홍보 아내의 ‘가난타령’과 ‘자진모리’ 부분 홍보가 아내를 달래는 대사, ㉣은 ‘아니리’ 부분의 ‘홍보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박을 툇툇 뿜겨 본즉 팔구월 찬 이슬에 박이 짹짹 여물었구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홍보가」에서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37.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충실히 파악하여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의 마지막 단락에 따르면 조선 후기 산수화나 풍속화에는 화가의 액자 밖 체험 이외에 액자 내부의 관찰자가 느낀 체험도 반영되어 있다. 이때 액자 내부 시점을 담당하는 것이 ‘구경꾼’인데, 풍속화에서는 주로 제시문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옛보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때 화가는 ‘구경꾼’ 즉 액자 내부 시점의 힘을 빌려 대상을 자유롭게 재해석하는데 이러한 재해석이 곧 화가의 세계관과 현실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②의 ‘화가의 의식 세계를 반영한다.’는 진술이 적절하다.

38. [어휘의 의미와 용례 이해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용례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를 참고하면 ㉠의 ‘-다시피’는 ‘-는 바와 같이’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의 ‘뒤편다시피’의 ‘-다시피’는 ‘어떤 동작에 가까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인 문]

[39-42] 출전 : 김용석, 「두 글자의 철학」

39. [세부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와 다르게 시기심은 긍정적인 목적을 전혀 내포하지 않은 감정이다. 두 번째 문단에서 남부럽지 않은 사람도 시기심을 품을 수 있다는 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처럼 상대가 훌륭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시기심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 ④처럼 적대적 시기심은 타인의 과멸도 가져오지만 나쁜 결과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했으며, 세 번째 문단에서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0. [내용 적용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에서 다이달로스의 시기심이 감정으로 머물지 않고 상대방인 탈로스를 해치는 형태로 표출되었으므로 이 행위는 ‘적대적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는 탈로스의 삼촌이자 스승인 다이달로스가 자신의 어린 조카이자 제자인 탈로스를 상대로 품은 감정이니 ‘간격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③에서 다이달로스의 시기심은 탈로스를 해친 행위로 발현된, ‘실질적 시기심’이라고 볼 수 있다. ⑤에서 시기심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기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④에서 적대적 시기심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상대에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호의를 베푼었다고 해서 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주어진 정보와 관련된 사례 찾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와 관련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자연의 은유적 가르침’이란 상대를 시기하는 마음을 파괴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숙의 계기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②는 동생의 입상을 계기로, 본인도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의 발전을 꾀했으므로 자연의 은유적인 가르침을 실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42. [문맥적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 찾기]

[출제의도] 문맥적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후배가 선배보다 낫다.’, ②는 ‘무엇이나 남이 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③은 ‘외부에서 들어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는다.’, ④는 ‘부자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근심거리가 더 많다’, ⑤는 ‘남이 잘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의 문맥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속담은 ⑤이다.

[사 회]

[43-45] 출전 : LG경제연구원, 「2010 대한민국 트렌드」

43. [글의 논지 전개 방식 이해하기]

[출제의도] 제시문에 사용된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은 한국식 웰빙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였고, 또한 한국식 웰빙이 미국식 로하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선진국형 로하스의 개념과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44.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출제의도]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한국형 웰빙형은 개인적·자기중심적 소비 욕구를 지니고, 건강과 환경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환경 보존을 위한 적극적 의지까지는 없는 소비자 유형이다. 반면 미국식 웰빙인 로하스는 이타적이고 공동체적 소비 욕구를 지니고, 건강을 넘어 환경 보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소비자 유형이다. 따라서 검사의 내용으로 보아 A에는 ‘한국식 웰빙형’이, B에는 ‘환경의 중요성은 알지만 적극적인 실천 의지는 부족한 유형’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5.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광고 전략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한국형 웰빙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판매 전략에 해당하는 광고 문구도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의 건강은 염려하나 환경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웰빙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④가 적절하다.

[시가 복합]

[46-50] 출전 : (가) 박인로, 「임암29곡」
(나) 정약용, 「명화계부운(奉和季父韻)」
(다) 김용준, 「안경」

46.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이 지닌 공통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②의 현실에 자족하는 삶의 태도는 (가)의 넷째 작품 ‘~생긴 대로 늙으리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에서는 벼슬길에서 물러나서 고향에 돌아와 선인들이 남긴 글을 읽고 살겠다는 태도에서,

(다)에서는 안정에 익숙해지듯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고 자족하여 살겠다는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47.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이 지닌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첫째 수의 ‘바위’를 통해 흔들림 없고 불변하는 삶을 지향하는 태도에서 교훈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②에서 대립적 시어는 첫째 수 ‘무정’과 ‘유정’, 둘째 수 ‘격진령’과 ‘산 밖’, 넷째 수 ‘세상’과 ‘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에서 탈속적 공간은 ‘격진령’, ‘산 좋고 물 좋은 굴’에 나타나 있다. ④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넷째 수 ‘~반길런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⑤처럼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시어는 확인할 수 없다.

48. [작품의 내용 구조에 따라 감상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구조를 파악하여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작품에 나타난 내용을 ‘욕망-갈등-해소’의 구조로 파악했을 때, 욕망으로 인한 갈등과 해소의 과정은 시의 전반부에서 벼슬길에 나섰던 행위에서 ‘욕망’이, 고향을 그리워하여 밤마다 꿈을 꾸는 행위에서 ‘갈등’이, 처자식을 이끌고 고향에 돌아와 고향 사람들과 어울리며 선인들이 남긴 책을 읽으며 살아가는 행위에서 ‘해소’로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 과정을 화자가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도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백안시할까 염려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9.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를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③에서 [A]의 화자는 사람은 결국 자신 안에 한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자족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기>의 화자에게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진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0. [시어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시어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 ㉡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어지러운 세상, ㉢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 의미의 세상, ㉣은 자기 스스로 만든 자족적 공간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한다.

num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실행을 멈추고 그 때의 N의 값을 출력한다.

14. [출제의도] 반복문을 이용하여 배열에 저장된 값 구하기

[해설] 반복문의 a[a[0]]은 a[0]으로 그 값은 ‘0’이며, a[a[1]]은 a[2]로 ‘1’, a[a[2]]는 a[1]로 ‘2’가 된다. 따라서 결과값은 ‘0 1 2’이다.

15. [출제의도] 2진수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10진수 구하기

[해설] co함수는 입력 받은 자료의 값이 1자리 수일 때까지 자신을 호출하는 재귀 호출 함수이다. 2진수의 값이 (1010)₂일 경우 (1010)₂는 (101)₂*2+1이고, (101)₂은 (10)₂*2+1, (10)₂은 (1)₂*2+0 이다. co함수는 이를 재귀 호출 함수로 작성한 것이다.

16. [출제의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의 특징을 가지며,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고, 실세계의 현상을 모델링하여 생산성과 재사용성을 극대화 한다.

17. [출제의도] 탐색을 이용한 결과값 구하기

[해설] 조건문에서 i=2일 때 ‘r’을 찾고 반복문을 빠져

나온다. a[i+1] 즉 a[3]의 값 10을 출력한다.

18. [출제의도] 버블정렬의 단계별 작업과정 이해하기

[해설] 버블정렬은 인접한 요소의 값을 비교 한 후, 대소 관계에 따라 교환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배열 요소의 큰 값을 배열의 마지막으로 이동시키며 이렇게 이동된 요소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된다.

19. [출제의도] 프로그램 출력값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해설] 반복문을 수행하는 동안 k값은 양수와 음수의 값으로 토글 되고, i는 그 반복 횟수이다. sum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1 - \frac{1}{2} + \frac{1}{3} - \frac{1}{4} + \frac{1}{5}$ 이다.

20. [출제의도] 조건을 만족하는 수식 구하기

[해설] 조건에서 동, 층, 호실은 각 1자리 정수가 조합되어 3자리의 의미 있는 호수를 가진다. 한 동에 12명씩 배치된 동의 계산식은 (학번-1)을 12로 나눈 몫 +1이며, 층의 계산식은 (학번-1)을 12로 나눈 나머지를 4로 나눈 몫+1이고, 호실은 (학번-1)을 4로 나눈 나머지 + 1이다.